

민족의 기상 '산신령'으로 통했다

한반도 호랑이史

경인년(庚寅年) 호랑이의 해가 밝았다. 건국 신화에 등장할 만큼 우리 민족이 사랑하는 동물의 해이기에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호랑이는 우리 민족에서 산신령 및 산군자(山君子)로 통하는 신앙의 대상이자 중국의 용, 인도의 코끼리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동물이다. 특히 우리나라 지도가 호랑이의 몸짓을 닮았다는 이야기나 각종 속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등 한국인의 호랑이 사랑은 각별하다. 하지만 동물원 호랑이를 제외한 남한지역에서 살고 있는 야생 호랑이의 생존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경인년 호랑이 해를 맞아 한반도 호랑이 역사에 대해 알아보자.



다. 특히 일제 때 조선총독부는 개발을 명목으로 호랑이를 방해되는 동물로 치부해 경찰과 헌병들이 수천명의 주민을 동원해 호랑이를 사냥했다. 당시 총독부 자료에 1910~1945년까지 호랑이 97마리, 표범 624마리가 포획됐다고 적혀 있다.

◇남한 호랑이, 1924년 이후 흔적 끊겨= 남한지역에서 발견된 호랑이는 지난 1924년 전남에서 4마리가 포획됐다는 내용

농지개간 시작되면서 '인간과의 평화' 깨져
1924년 전남서 4마리 포획 문헌상 마지막
국내 유일 호랑이 박제 목포유달초에 전시

막 흔적이다. 그 이후로도 전국 각지에서는 끊임없이 호랑이를 봤다는 목격담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국내에 야생 호랑이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많다. 특히 그동안 수차

거물들이 나왔지만 결국 멧돼지나 다른 들짐승으로 판정났다. 이로써 현재 호랑이의 생존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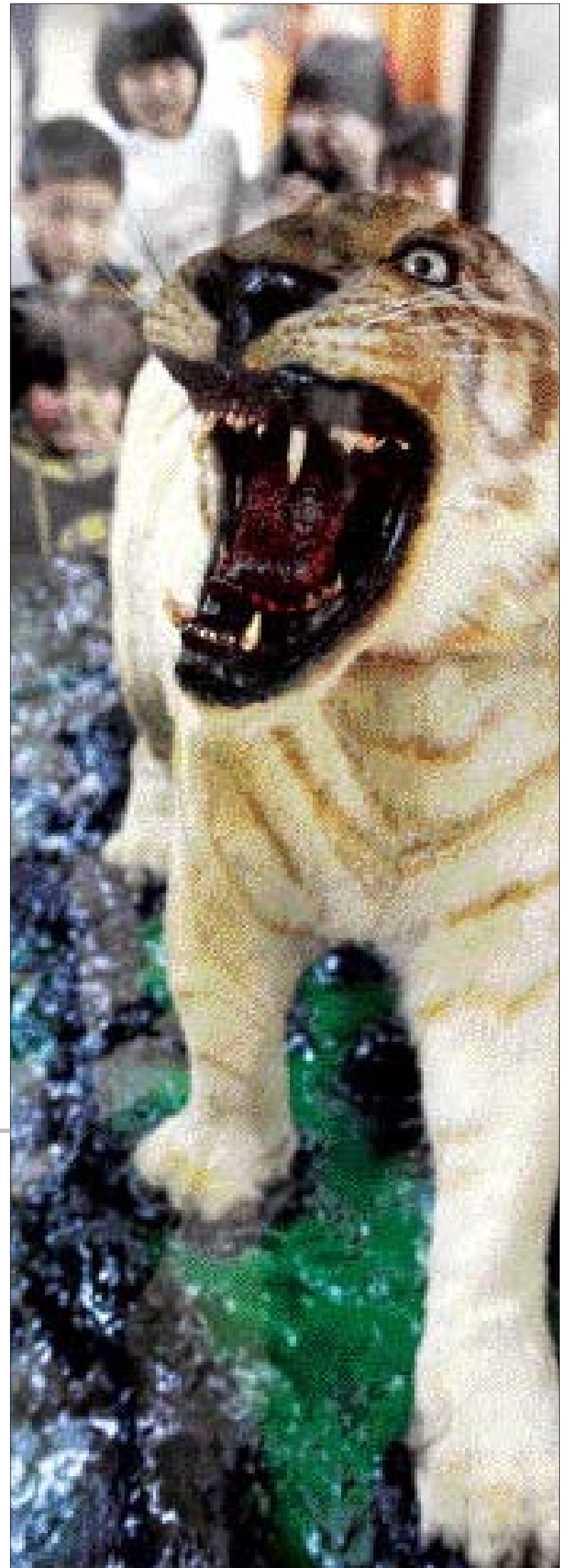
◇목포에 국내 유일 호랑이 박제= 실제 호랑이의 출현이 약 90년간 끊기자 국내 남아있는 유일한 남한 호랑이 박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목포 유달초등학교에 전시된 호랑이는 지난 1908년 2월경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 인근에 농부가 파 놓은 함정에 빠지는 바람에 잡혔다. 10살 안팎의 암컷인 이 호랑이는 몸통 160cm, 신장 95cm, 몸무게 180kg이며 당시 한국에 살던 일본인 하라구치 소지로씨가 사들여 박제로 만든 뒤 기증했다. 이 호랑이는 북쪽에서 서식하는 시베리아 종보다 덩치가 작고, 털 색깔도 갈색이나 붉은빛이 많다.

특히 박제 호랑이를 최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분석한 결과 남한호랑이가 시베리아호랑이와 같은 종(種)이지만 서식 환경에 적응해 형질(形質) 특성이 달라졌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국립생물관 척추동물연구과 관계자는 "시베리아 호랑이와 유전자 형질이 약간 다른 것은 북쪽지방과 달리 비교적 험한 산이 없고 눈이 작게 오는 지형적인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며 "한국 호랑이의 유전자 정보를 내건 국제학술지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호랑이해인 2010년 경인년을 맞아지만 우리나라에서 호랑이가 발견됐다는 소식은 지난 1924년 이후 들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남한 호랑이가 국내에 존재하고 있기를 바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08년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 인근에서 불잡혀 박제된 후 목포 유달초등학교에 전시돼 있는 호랑이로 학생들이 신기하 듯 쳐다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전남 설화속 호랑이

'후백제의 초대 왕인 견훤이 호랑이 젓을 먹고 자랐다?' '위남은 호랑이를 물리치기 위한 도구였다?' '호랑이 수염으로 만든 이수시계가 있었다?'

우리나라 민속 자료 책자 등에는 유난히 호랑이가 등장하는 구절이 많다. 그만큼 과거에는 호랑이가 많이 살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광주·전남지역과 관련된 호랑이들의 설화들도 많다.

광주지역에 전해지는 설화에 따르면 백제의 초대왕인 견훤은 고향이 광주시 북구 생운동이다. 각종 문헌에는 견훤의 고향이 경성북도 상주라고 하지만 광주지역 설화에서는 북구 삼각산의 견훤대(죽지봉) 봉우리에서 지렁이로부터 태어났으며 어려서 호랑이 젓을 먹고 자랐다는 전설이 남아있다. 미천한 신분을 신성한 존재로 각인시키기 위해 호랑이로부터 젓을

후백제 초대왕 견훤 호랑이 젓 먹고 자랐다?

얻어먹고 자랐다는 전설을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또 전라남도에는 호랑이 형상을 한 바위도 많이 있다. 강진군 성전면에는 범바위라고 불리는 바위가 있으며 완도군 청산도에도 범바위가 있다. 또 나주시가 소반(小盤·음식 그릇을 올려놓는 작은 상)을 잘 만들기로 유명했는데 그 중 으뜸은 호랑이 뒷다리 모양을 본떠 만든 호족반이었다. 이 때문에 양반들은 호족반을 품격있는 밥상으로 생각해 많이 사용했다. 이 이수시계도 호랑이 수염으로 만든 게 최고급이었으며 호랑이 뼈를 담가서 만든 호골주도 인기를 끌었다고 전해진다.

조선시대에는 민간마을로 종종 내려오는 호랑이를 퇴치하기 위해 소나 말에 달았던 위낭을 사용하기도 했다. 위낭의 한 종류인 호두령

은 호랑이 두상의 형상을 한 위낭으로 불에 비추면 빛을 발했으며 소나 말의 이마나 등에 붙였다. 호랑이가 쇠소리와 빛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비슷한 원리로 절 처마 밑에 있는 풍경도 특유의 쇠소리를 이용해 호랑이가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는 내용이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흔레를 치른 후 신혼 집에 처음 가는 신부에게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담요를 덮어 동물의 접근을 막기도 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호랑이와 관련된 내용도 많다. 대표적인 것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가 있으며 '호랑이 없는 골짜기에 토끼가 왕노릇한다' '오뉴월 손님은 호랑이 보다 무섭다' 등이 있다.

민속학 속에서 전국 팔도 사람들의 성격을 비교한 내용도 재미있다.

평안도 사람들은 '맹호출림(猛虎出林)이라고 표현했다. 호랑이가 먹이를 찾기 위해 수풀에서 나타난다는 뜻의 '맹호출림'은 평안도 사람들의 웅망하고 성급한 성격을 비유한 것이다. 그에 반해 전라도 사람들은 바람 앞에 나부끼는 세버들이라는 '풍전세류(風前細柳)로 표현했다. 부드럽고 영리한 전라도 사람의 성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김형주 광주민속박물관 학예사는 "설화나 민속 책자에 수많은 기록이 남아있는 걸로 봐서 마을 인근 야산에서도 호랑이가 살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간과 호랑이가 공존하면서 살았던 과거와 달리 일제시대 이후 유해동물로 지정돼 마구잡이로 포획·살상돼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Premium buffet
하이델리시아
고품질에 뉴, 건강맛, 풍족있는 서비스
하이델리시아
02-671-1199